

보도시점

2023. 6. 19.(월) 13:00

배포

2023. 6. 19.(월) 13:00

한국농어촌공사·한국섬진흥원, 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MOU 체결

- 무장애섬(BF ISLAND) 조성을 위한 모델개발로 ESG 경영 실천

한국농어촌공사(사장 이병호)와 한국섬진흥원(원장 오동호)는 19일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장애물 없는 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

이번 협약은 공사의 농어촌형 BF(BF;Barrier Free)인증 노하우를 바탕으로, 섬 전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과 협력하여 섬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정주 여건 개선과 무장애섬(BF ISLAND) 모델발굴 등 ESG 경영 실현을 위해 추진됐다.

협약서는 섬 지역을 대상으로 ▲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▲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 서비스 확대 ▲연구·사업 실행 협력 ▲인적자원, 연구자료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교류 ▲지역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국민 참여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.

이날 협약을 기반으로 양 기관은 전라남도 섬 지역을 대상으로 무장애 거주환경 시범모델을 개발·적용하고,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
이병호 사장은 “농어업 분야 ESG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”며 “공사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결합시켜 다양한 신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농촌공간개발처	책임자	부 장	김국현 (061-338-5421)
	농촌공간계획부	담당자	대 리	김나음 (061-338-5423)